

2016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소설·동화 1276편 응모

“삶이 고달퍼도 문학 열정은 뜨거웠다”



22일 광주일보 편집국회의실에서 2016년 신춘문예 심사자 열렸다. 왼쪽부터 이성자 동화작가, 함정민 작가, 신형철 평론가.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문청들 전국 각지서 투고 ... 40~50대 중장년층 급증 개인의 무력한 일상사와 힘든 삶 소재로한 내용 많아

삶이 고달픈수록 문학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살아난다는 말은 고전적 정리가 된 지 오래다. 현실의 각박함과 고단함을 문학적으로 상상력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다.

2016년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이 같은 명제를 증명이라도 하듯 장르별 적잖은 문청들이 응모를 했다. 올해 응모작은 모두 1276편. 분야별로 시 1006편, 소설 124편, 동화 146편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은 문청들로 하여금 문학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탈출구 없는 삶의 무게를 문학으로 달래보고자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올해 신춘문예 투고 작품들은 개인의 무력한 일상사와 삶의 고달픔을 소재로 한 내용들이 많았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기 추락 사고, 장성노인 요양원 화재 등 사회적 공분을 샀던

대형 참사를 다룬 작품들이 눈에 띄었지만, 올해는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둔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예비작가들이 사회적 담론보다는 자신을 앞에 놓인 문제를 보다 현실적인 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예년 수준의 응모현황과 달리 작품 수준은 다소 높아졌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전체적인 면에서 왜 문학을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성찰이 작품에 일정 부분 투영됐다는 의미다.

투고자의 연령, 직업, 거주지 면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 전남·북 일원뿐 아니라 부산,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 인천과 경기 일원의 수도권 투고자들도 많았다. 신춘문예가 신년을 맞이하는 문학축제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문청들의 이 같은 도전은 여전히 문학의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확장시절에 가졌던 문학 열정이 시간이 지난 후 자연스레 글을 쓰거나 하는 열망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에는 40~50대 중장년층의 투고가 많았다. 중장년 여성들이 문학을 통해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회고형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눈에 띄는 개성적인 원고들도 많았다. 직접 원고지에 작품을 써서 보낸 응모자들도 있었고, 서류 파일에 철을 해서 보낸 작품도 있었다. 매 작품마다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원고에서는 당선에 대한 강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10대를 비롯해 20대와 30대 응모도 많았지만 작품 경향은 지극히 사적이고 단편적인 특징을 보였다.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구조화하고 타자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관점이 다소 미흡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소설 부문에서는 사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투고작 중에는 차매, 기억, 아르바이트를 소재로 다룬 작품들이 많았다. 고달픈 현실과 어두운 삶의 이면을 천착하는 작품들이 예년에 비해 많았던 것은 문학적 상상력으로 각박한 세대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읽힌다.

함정민 작가는 “실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루는 작품도 많았지만 해외여행이나 외국 생활 경험 등을 다룬 소설도 있었

다”면서 “새로운 세대의 문화적 감수성이 창작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시 부문에서는 기성세대와 30대 이하의 젊은 층 세대 간의 시적 경향이 변별되는 양상을 보였다. 신형철 평론가는 “장년 세대의 시는 지나온 삶과 추억 등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기법 면에서는 다소 투박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젊은 세대는 살아온 삶이 짧은 만큼 작품과 연계해 삶을 형상화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했다.

동화 부문은 일상의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동물, 다문화가정, 학교생활 등 주변을 다룬 소재가 많았다. 이성자 동화작가는 “소소한 주변의 이야기를 그린 동화가 많았지만 눈에 띄는 참신한 작품은 많지 않았다”면서 “일부 틀에 박히거나 정제되지 않는 작품들은 동화라는 장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당선작은 2016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2016년 1월 중순 열린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사회 지성의 결정체’ 김우창 교수 전집 총 19권 발간

대표 인문학자인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78)의 전집이 민음사에서 발간됐다.

합평 출신 김 교수는 1960년대부터 글을 발표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50년에 걸쳐 활동해온 우리 사회의 대표 지성인이다.

민음사는 2014년 1월 김우창 전집을 출간하기로 하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964년에서 2014년까지 발표된 글과 미발표 원고를 모두 수집하고, 편집위원의 검토를 거치는

등 출간 절차를 밟았다.

총 19권으로 기획된 전집은 이달 1차본 7권이 먼저 출간됐으며 원고지 분량만 5만 5000매에 이른다. 김 교수의 첫 저서 ‘궁핍한 시대의 시인’은 1970년대를 관통하는 평론집으로, 최남선에서 서정주까지 한국 현대 시의 궤적을 분석한다.

6~7권은 단행본으로 처음 선보이는 글들이다. 6권 ‘보편 이념과 나날의 삶’은 현대 영미문학에 관한 초창기 평론을 다루고 있으며 7권 ‘문학과 그 너머’는 1987년부터 1999년까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주목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아침,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거래소는 공포에 휩싸였다. 개장과 동시에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폭락하자 순식간에 카오스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날부터 11월 13일까지 약 20일 동안 300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주가는 날마다 추락하고, 주식에 투기했던 기업과 은행은 줄줄이 무너졌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경제가 망가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바로 그 유명한 ‘검은 목요일(Black Thursday)’이다. 20세기 초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이렇게 시작됐다.

부러움과 콤플렉스(?) 등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힌 것이다. 풍부한 재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유럽미술품을 사들이긴 했으나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이들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유럽을 방문한 미국의 재력가나 사회지도층들은 ‘문화’에서만큼은 기가 죽었다. 상류층을 중심으로 유럽에 필적할 만한 미술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애비의 친구들’ 역시 드러내놓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재빨리 간파한 작가 아서 데이비스는 애비 록펠러 여사를

1929년 vs 2015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때, 뉴욕커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반가운 뉴스가 전해졌다. 맨하탄 한복판에 뉴욕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이하 모마)이 문을 연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욕이 떨어지고 일반 가계의 소비심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모마 개관은 센세이션 그 자체였다.

모마의 개관공식은 다음 아닌 3명의 사모님이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의 며느리인 애비 록펠러와 그녀의 친구인 메리 퀸 설리반, 릴리 블리스였다. 당시 뉴욕사회에서는 무모한 거사(?)를 감행한 이들에 대해 ‘대담한 여성들’, 또는 ‘철없는 사모님들’이라는 엇갈린 평이 나올 정도였다.

이들 3명이 미술관 건립에 힘을 모으게 된 계기는 ‘자존심’이었다. 종종 남편들과 함께 유럽여행을 다녀온 이들은 웬지 모를 허탈감이 가슴 한편에 남았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전혀 ‘꼴릴게’ 없었지만 유럽의 미술관들을 둘러본 후

찾아가 미술관 건립을 제안했고 마침내 대공황 속에서 역사적인 개관을 하게 됐다.

모마는 개관과 동시에 현대미술의 대가로 우뚝 섰다. 애비 여사의 화려한 컬렉션과 기업인들의 기부로 구입한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 등 세기의 걸작들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모마가 개관한 1929년은 문화강국의 저력을 보여준 해로 다른 나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인 문화명사로 떠오른 요코하마의 ‘뱅크 오브 1929’가 그 예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운 모마의 탄생에서 영감을 얻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저물어간다. 올해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 착공된 지 10년 만에 개관한 뜻깊은 해다. 먼 훗날 2015년이 문화융성의 해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는다는 이제 광주의 역량이 달렸

다. 아유 2015년!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대인예술시장 아카이브 D’ 29일 워크숍·북 출간회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의 역사와 진화과정을 담아낸 ‘대인예술시장 아카이브 D’ 조성 사업이 오는 29일 오후 3시 대인시장 우그로 카페에서 워크숍과 아카이브 북 출간회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아카이브 사례를 살펴보고 대인예술시장 아카이브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대인예술시장에

위치한 벽화를 주제로 한 아카이브 샘플북 ‘The Wall : 담화’의 출간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은 박경섭 책임연구원의 사업 소개와 샘플북 출간회로 시작으로 전문시장 아카이브 방향과 과제에 대한 발제로 이어진다.

문의 062-233-14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p>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p> <p>(7층) 건물 (사우나 건물)</p> <p>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p> <p>☆ 월 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p> <p>(보 1억5천만, 용 7억)</p> <p>매가 15억 5천</p> <p>010-7384-7800</p>	<p>신축 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p> <p>(4층) 신축원룸</p> <p>1층 (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p> <p>4면 올 대리석 시공 신축 원룸 / 내부 깨끗 / 풀옵션</p> <p>(보 4천만, 월 500만, 용 1억2천만)</p> <p>매가 6억 7천만</p> <p>①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②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2개,원룸6개) (보4천5백,월20만) → 매가 7억8천만 ③ 용봉지구 원룸 (미래대 A.P.T 코너) 룸-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p> <p>010-6670-9800</p>	<p>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투자) (매월 월세로 연금대비 하세요~!)</p> <p>①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주택) (토 81평, 건 30평) 압록역,성진강 부근 주택 추천 → 매가 5천만 ②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올수리 (용5천(보)천월0만) → 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옆 (용4천(보)5백,월 42만) → 매가 7천5백만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용5천(보)5백,월50만) → 매가 8천5백만 ⑤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옆 (용2천(보)3백,월33만) → 매가 5천만 ⑥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천역비출구 3분 (용1천(보)2백,월32만) → 매가 3천8백만 ⑦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1층(40평) (보8백,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⑧ 광양 광영동 상아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월25만) → 매가 3천5백만 ⑨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보)천,월70만) → 매가 1억3천만 ⑩ 북구 중흥동 전대 정문/후문 2분거리 (상가원룸) 1층 (상가22) 2층~3층 (원룸6개,투룸2개) 4층 (주택) (보 4천, 월 520만) → 매가 6억8천만 ⑪ 커피숍 임대 (25평,1층 도로점) (시설비 4천만, 보 2천만 월 150만) → 매가 1억3천만</p> <p>010-6834-44800 / 010-6832-9700</p>	<p>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p> <p>1. 북구 오룡동 (토 500평,건 900평) ※ 1층 (상가) 2층~7층(오피스텔 룸 56개) 8층 (41평,주택및사무실) 삼성전자 정문 앞, 공단및교육시설 단지 감정가 35억 → 최저가 19억8천만</p> <p>2. 남구 주월동 (토 206평,건 64.5평) ※ 남구정 부근 도로점 코너자리 감정가 16억8천 → 최저가 11억8천만</p> <p>3. 광산구 박호동 (토300평,건150평) ※ 단층 영업소 식당, 황용강 부근, 도로점 감정가 4억 6천 → 최저가 4억 6천</p> <p>4. 서구 마루동 (토 342평,건 84평) (주유소) ※ 광주아울렛 뒷편, 투자적합 감정가 9억9천 → 최저가 6억9천</p> <p>5. 북구 중흥동 (토 84평,건 385평) (의료시설) ※ 광우역 남동쪽 부근 도로점, 한방병원 시설완비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만</p> <p>6. 광산구 서봉동 (토 40평,건 44평) ※ 송산 유원지 부근, 황용강 부근, 도로점 감정가 7천 2백 → 최저가 7천2백</p> <p>★ 직원 구함 ★ 부동산,경매 직원 구합니다 경매 입찰부터 매매,개발기획까지 함께 배우실분 모집합니다.</p> <p>010-6834-44800 / 010-6832-9700</p>	<p>경매교육</p> <p>바로실천 교육되고 수익창출가능</p> <p>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p> <p>경매기본교육부터 실천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p> <p>경매 물건 추천</p> <p>1. 남구 병림동 (토 207평,건333평) (근린시설) 감정가 9억9천 → 최저가 6억9천</p> <p>2. 동구 수기동 (토130평,건320평) 감정가 10억 → 최저가 6억</p> <p>3.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 (토12평,건90평)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3억5천</p> <p>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p>
---	---	--	--	---